

태고보우 국사 헌창 기념법회

15일 중국 절강성 하무산 천호암에 碑제막

“이 가사는 오늘의 것이지만 법은 영축산에서 흘러나와 지금에 이른 것이다. 지금 그것을 그대에게 전하노니 잘 보호해 끊어지지 않게 하라.”



태고보우 국사 진영.

1347년 7월, 한국불교의 중흥으로 칭송받고 있는 태고보우 국사가 중국 후주시 천호암 석유청공 선사와 결하여 임제선을 탐구한 후, 한국으로 돌아오려 할 때의 일이다. 청공 선사는 보우 스님에게 <태고 입가>의 발문을 써주고, 깨달음의 신표로 가사(袈裟)를 주면서 위와 같이 말한다.

태고보우 국사가 청공 선사로부터 임제선맥을 계승 받았던 천호암에 보우 스님의 헌창(獻彰) 기념비가 제막된다.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12월 15일 중국 절강성 하무산 천호암(雲頂山)에서 ‘태고보우 국사 헌창 기념비 제막법회’를 봉행한다.

태고종과 중국 절강성 후주시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법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교무부원장

보경 스님, 최석환 대표(국제선처문화연구원) 등 한국 측 불교·문화계 인사와 중국 측 불교·정계 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비문에는 보우 스님에 대한 역사·불교적 고찰 등의 내용이 새겨진다.

행사를 기획한 무궁 스님(대륜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은 “보우 스님은 한국 불교의 중흥 시조이자 태고종의 종조로서 한국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며 “이번 헌창 기념비 제막법회는 보우 스님을 기리기 위해 국제선처문화연구원 등과 3년 전부터 기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태고보우 국사(1301~1382)는 13세에 양주 회암사에서 득도한 후, 46세에 중국으로 건너가 2년여 동안 수행하던 중 임제 선사의 18대 법손인 석유청공(1272~1352) 선사 를 만나 법통을 이어받았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스님은 공민왕과 우왕 2대에 걸쳐 국사로서 활동하며 임제정맥을 한국에 뿌리내리고, 원호 스님의 화쟁회통(和靜會通) 사상을 원융불교(圓融佛敎) 사상으로 실현해 5고 9산으로 어지러웠던 고려 불교계를 통합, 오늘날까지 한국 불교의 중흥조로 추앙받고 있다.

한편 제막법회 후에는 중국 절강성 후주시에서 한·중 공동 학술대회 ‘석유과 태고, 그리고 선차’가 열린다. 학술대회에서는 청공·보우 스님의 선 사상과 차에 대한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yeam@buddhapia.com

태고종 비구 120명·비구니 64명 탄생

12월 2일 봉원사에서 구족계 수계산림법회 봉행



봉원사에서 봉행된 태고종 제7차 구족계 수계산림법회.

비구 120명·비구니 64명의 태고종 스님이 새롭게 탄생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12월 2일 봉원사에서 제7차 구족계 수계산림법회를 봉행했다. 수진 스님(해동 원호 스님의 화쟁회통(和靜會通) 사상)을 원융불교(圓融佛敎) 사상으로 실현해 5고 9산으로 어지러웠던 고려 불교계를 통합, 오늘날까지 한국 불교의 중흥조로 추앙받고 있다.

비구 120명·비구니 64명의 스님이 구족계를 수계 받았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신념을 굳게 지키고 립법회를 봉행했다. 수진 스님(해동 원호 스님의 화쟁회통(和靜會通) 사상)을 원융불교(圓融佛敎) 사상으로 실현해 5고 9산으로 어지러웠던 고려 불교계를 통합, 오늘날까지 한국 불교의 중흥조로 추앙받고 있다.”

국민화합 기원 보현행원송 메아리

제10회 천태예술제 성료



참 생명의 가치 보현행원송(普賢行願頌) 공연.

음성분사를 통한 문화포교로 불교의 대중화에 앞장서 온 천태예술제 가을호로 10회를 맞이했다.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11월 30일 안산 문화예술의전당에서 ‘국민 대화합기원 제10회 천태예술제’를 개최, 사부대중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법하게 막을 내렸다.

보현행원 실천을 통한 참생명의 가치 구현 등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마련된 이번 예술제는 금강 무용단의 ‘하늘 꽃’ 공연과 천태전통법패보존 연구회의 작비시연 등을 공연했다. 이어 이상규 교수(한양대 국악과)의 지휘로 바리톤 김재일씨, L.M.B

아즈, 서울·경기 지역 천태연합합창단 250여 명, 안산시립국악관현악단 등이 ‘참 생명의 가치 보현행원송(普賢行願頌)’을 웅장하게 공연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예술제의 주제처럼 모든 번뇌가 끝날 수 있도록 보현행원 실천에 더욱 정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공연을 관람한 김성숙(56)씨는 “음악을 통해 부처님 말씀을 들으니 불교가 더욱 쉽게 다가오는 것 같다”며 “이번 공연을 처음 관람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기회가 많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공동조사 통해 사실 확인하자”

태고종, 보우승가회 현안 타개 위한 공청회 개최

“비운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말이 있듯 정확한 사실 확인을 통해 대화합을 이뤘으면 좋겠다. 공동조사를 통해 계획적인 비리 사실이 확인된다면 책임을 지겠고, 그렇지 않다면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이 집행부 비리 의혹 등 종단 현안에 대한 공청회 자리에서 “종단의 각종 문제에 대해 총무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참여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그동안 종단 집행부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태고종 보우승가회는 12월 4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회의실에서 운산 스님 등 종단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종단 현안 타개 위한 보우승가회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경과보고, 총무원장·보우승가회장 모두발언,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보우승가회장 도산 스님은 “보우승가회는 그동안 종단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오해 속에서도 수많은 종단 내 의혹 사안들을 조사했다”며 “상처가 있다면 도려내는 아픔을 감내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운산 스님의 ‘사실 확인 의지’에 뜻을 같이했다.

이날 공청회는 △사회복지법인 논산 노인병원 △납양주 도법사 △울산 육통사 △사회복지법인 화지동 토지매매 △벽제 극락사 △태고원 천중사 등의 의혹 순으로 보우승가회 측이 운산 스님에게 질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운산 스님이 육통사 사안에 대한 질의응답 후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성역 없이 조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고, 보우승가회 측이 이를 받아들여 중도에 마무리됐다.

태고종 중앙종회 개최

12월 11일 전통문화전승관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인공)는 12월 11일 오전 11시 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96회 정기중앙종회를 개최한다.

이번 중앙종회는 2009년도 종단 사업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 종법(지방 총무원회)개정안 및 종단 현안에 관한 사항 등이 심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태고종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기 중앙종회를 통해 종단 안정과 종도 대화합을 위한 종도의 뜻을 결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구독신청·기사제보 02-2004-8200

“부처님 당시 수행풍토 실천”

“내가 모든 중생을 관할하니, 계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탓으로 악취에 도로 떨어져 윤회를 받고 있다. 이외는 달리, 이 도리를 잘 알아서 길이 계를 마음에 새겨 있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기필코 불환과(不還果)를 얻어서 이 세상에는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본사경>

준하는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스님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수행을 중단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삼화불교만의 특징이다. 또한 매월 보름 ‘자자(自恣) 참회법회’를 봉행해 스님과 신도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생활화함으로써 화복한 사회로의 회향을 지향하기도 한다.

부처님은 계를 지키는 공덕을 닦아 성취하면 성불하게 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계율을 중히 여겼다. 하지만 현재의 한국불교는 가풍이 전도돼 계율의 중요성을 망각한 지 오래다.



혜인 스님.

본래 자자는 여름 안개가 끝나는 음력 7월 15일에 안거생활을 함께 한 승려들이 모여 각자의 허물이 있었는지를 동료 스님들에게 묻는 의식이다.

삼화불교는 불교의 세계화를 위해 2003년부터 ‘4차 5개년 계획’을 실현

불교조계종삼화불교는 계율을 중시했던 부처님

정기적인 승려교육으로 계율의 중요성 강조

당시 수행풍토를 실천하고자 2002년 10월 25일 창종했다. 역사적으로는 중국 당나라 도선 율사가 창수한 계율종에서 기원하고 있으며, 신라 자장율사를 종조로 혜인 율사를 중흥조로 종맥을 이어가고자 한다.

삼화불교는 900여 스님과 250만여 신도들이 전국 580여 개 사찰에서 ‘계율이 정정해야 영적으로 청정할 수 있다’는 원력으로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각 본·말사에서 승려교육을 실시해 계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신도들을 위한 <한글 불교성전>을 발간해 신도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종단차원에서 입종 5년·수행 20년, 65세 이상 스님들에게 9급 공무원 월급(기본급)에

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1000개 사찰·500만 신도를 구현함과 동시에 2023년까지 전 세계 1억 신도를 목표로 하는 장기적인 포교계획이다. 2007년도까지 실시된 1차 계획에 의해 현재 중국 청도와 남경, 미국 뉴욕·뉴저지·텍사스·캘리포니아주, 일본 동경과 오사카 등에 삼화불교 소속 사찰이 건립돼 있다.

앞으로 삼화불교는 현재 진출한 국가를 포함해 영국 독일 필리핀 베트남 등에 사찰을 건립해 세계적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한국불교가 명실공히 세계 으뜸의 불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율종을 표방하는 종단으로서 계율을 중시하는 수행풍토를 보다 확고히 해나갈 것이다. 총무원 (02)511-2026

정리·김진성 기자

스리랑카 케라나 대학이 보장하는 미국-영국 대학유학을 위한 확실한 길!

▶무시험입학 전형 및 특전 [수능성적 무관 - 내신성적 무관]

학생들이 강의 필기, 독해 공식적 프리젠테이션, 개별토론 및 토의, 논문작성, 심화독해 문어체 텍스트분석들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대학교수준의 공부를 학생들이 할 수 있게 하기위해서 학생들을 영어 및 학습에서의 여러 요령을 터득하는데 집중하게 될 것이며, 그 요령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다.

- 학문적정취 및 필기
- 일반적 논문 및 보고서
- 구두(口頭)발표
- 교직원 및 다른 학생들과의 의견교환
- 학문적 독서 및 비판적 본문분석
- 요약과 해석
- 조사 및 도서관 활용법
- 컴퓨터 기술과 그 향상
- 시험대비

▶케라나대학에 입학했을시 누릴수 있는 특혜

- 스리랑카에 있는 외국대학 (미국유학 : ANC, American School / 영국유학 : England School)에 입학할 수 있다.
- 그리고 2학년 수료후 미국, 영국대학에 편입할 수 있다. ex) 미국 - Boston대학, 뉴욕대학 / 영국 - 옥스퍼드 대학 등
- 스리랑카에 있는 모든 대학의 2학년에 입학시험없이 편입
- 저렴한 비용으로 대학을 다닐수있다. (영어연수 / 전공과목이수)
- 남녀분리 기숙사가 완비되어있다.
- 학생비자는 스리랑카 케라나대학이 스폰서를 맡아 발급하므로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다.

한국스리랑카국제불교재단 이사장 해각지성

- ◇ 한국본부 : 성불사 주지 해각지성 스님
- ◇ 상담전화 : 서울지사 (02)813-3739 / 직 010-2519-0100

화제의 신간

해심래정 택일지

365일 매일 한 장씩! 한 눈에 훤히 볼 수 있게 뽑아놓은 래정비법!

4×6배판/칼라제본/436쪽/정가 20,000원

최초귀정을 개인지도

귀신뽑는 래정비법!

찾아온 일진, 시간만 가지고 왜 왔는지 무엇이 달랐는지 어떤 귀신이 붙었는지 어느 조상이 많이 낳는지 들어오는 순간 알 수 있는

특수 초사법 공개!

귀신뽑는 래정비법으로, 특강하지 않고 간단히 할 수 있는 비법공개! 91장짜리 일진비법 안내에 따라 할 수 있게 초사법을 상세하게 설명! 신권/정가/567쪽/정가 120,000원 ** 부록택일지

새롭게 다시 쓴 한국 최초의 신개념 택일지 운세 비법 출간!!

매일매일 운세 보는법 공개...

百超律歷學堂 Tel : (02) 3667-4446 입금계좌(예금주 : 조영신) 농협 023-02-478822 H.P : 010-3813-4443 신한 010-3813-4443